

“정치화합 경제회복 앞장”

국민회의 · 자민련 · 청와대불자회 합동법회

고산스님 축하법어

국민회의 연동회와 자민련불자회 청와대불자회는 2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국민의 정부 탄생 1주년 기념 및 기묘년 신년하례 합동법회를 병행했다.

법회에서 국민회의 연동회 박상규회장은 “국민의 정부에 관심갖고 도움준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불심을 모아 더욱 활기찬 국가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난국을 극복했다”며 “화해사상으로 정치화합에 더욱 진력하여 제2의 건국을 이룩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상심의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교종 총무원장 인곡,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진각종 총무원장 성초,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은



○ 국민회의 연동회와 자민련불자회가 주최하고 청와대불자회가 참가한 신년하례법회가 27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격려사를 통해 “오늘의 난국은 정치인들로 인해 비롯됐다”며 “하루빨리 정파간 분쟁을 일소하고 민생 현안처리에 더욱 진력하는 국회가 되도록 불자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청와대불자회 김태동회장은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한글 팔만대장경 CD롬” 타이틀을 기증했으며 법회참가자들은 식자

담기 성금을 모금했다. 이날 법회에는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과 국민회의 박상규부총재, 조성준 배종무 추미에 정한용의원, 자유민주연합 박철언부총재, 청와대 정책기획실 김태동수석, 현대불교신문 김광삼사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가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교사불자련 가족법회 신심 함양

지난 27~28일 월정사등 순례

“애들과 절에 가면 정서순화에 좋습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가족법회에 항상 아이들과 참가하고 있는 박경자씨는 2년생 아이들의 행동가치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안완숙)가 2월 27일부터 28일 까지 월정사 정암사 상선사 법흥사에서 가진 정초기도 가족법회에 참가한 35명의 회원 가족 불자들은 적멸보궁을 참배하며 가족화목과 신심을 다졌다.

이번 가족법회는 평소 시간적인 제약으로 마음놓고 기도할 못한 것에 대한 원을 풀기

라도 하듯 각 사찰에서의 기도정진에 이어 정암사에서는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철야기도를 했다.

박경자부회장은 “적멸보궁에서 정초기도를 하고 나니 올해는 원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며 “사찰에서 내려오며 ‘우리는 선우’ 회원들과 합장하며 ‘성불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유난히 가슴에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불자연합회 가족법회는 지난 해부터 시작했으며, 처음 승용차 1~2대로 출발하던 것이 1년새 대형버스 1대로 늘어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원우 기자

교사소식지 '귀소야'

26호 발간



광주전남교사모임(회장 김진택)은 교사들에게 띄우는 봄의 향기 <귀소야> 제 26호를 최근 발간했다.

<귀소야>에는 영조스님(증심사주지)의 지상법석 ‘참회 그리고 참회’, 김진택회장의 ‘기도 그리고 영험’, 현장스님(대원사주지)이 현대불교신문에 기고한 칼럼 ‘재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아광귀신을 위하여’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문의 (062)573-8810 김진택

세무사·국세청 합동법회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정은선)와 국세청보리회(회장 김정부)는 17일 오후 8시 강남 봉은사에서 합동법회를 개최한다.

봉은사주지 원혜스님이 법문으로 진행될 이날 합동법회는 60여명의 양단체 회원이 참가한다. 세무사불자회와 국세청보리회 합동법회는 1월 국세청보리회가 세무사불자회를 철보사에 초청한 이래

우리 모임에선

올해들어 두번째다. 정은선 세무사불자회 회장은 “합동법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신심을 증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02)407-9795

석불문화연 사랑방 모임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10일 오후 6시 삼정동 가족

아카데미에서 3월 사랑방 모임을 갖는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근후회장이 ‘부처님의 상화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한다. 문의 (02)760-5138

심우회 육군교도소 위원

심우회(회장 김명연)는 7일 육군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장병들을 위문했다. 이날 행사는 위문법회에 이어 다과시간 등이 마련됐다.

화두는 견성의 방편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11월 23일 식욕의 背理

겨울철에 구워먹는 상원사의 감자맛은 일미다. 선객의 위 사정이 가난한 탓도 있겠지만 장안 감자라도 씹어달리 없는 맛이 있다. 요 며칠전부터의 일이다. 군불뿔 아궁이의 꽃불이 죽고 알뜰만 남으면 고방에서 감자를 몇 되씩 훑쳐다가 아궁이에 넣고 재로 덮어 버린다. 저녁에 반상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자국이 담담 스님이 아궁이로 감자를 꺼내려 간다. 뒷방에서는 공모자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기다린다.

감자는 아궁이에서 몇시간 동안 잿불에 뜨뜻하게 잘 구워졌다. 새까만 겉질을 벗기면 감이 모락모락 온다. 맛은 틀림없이 삶은 밤맛이다. 서너개 먹으면 허기가 쫓겨간다. 잘 벗겨 먹지만 그래도 입언저리가 새까맣다. 서로를 보며 웃는다. 스님도 있고 위 의 사정도 좋아지니 여유가 생겨서다.

처음에는 화대(火臺)스님이 주동이 되어 몇몇 스님만 방선 후에 아궁이 앞에서 재미를 보았는데 이제는 뒷방에서 재미를 본다. 살림살이 책임자인 원주스님은 큰 방에서 자지 않고 별채에 있는 원주실에서 잔다. 그러기 때문에 뒷방의 감자국이 가능하다.

규교가 커졌다. 공모자가 많으니 감자의 절취량도 많아야 한다. 감자껍질 뒤처리하는 당번스님이 철저히 한다.

그러나 계량심(計量心)의 천재인 원주스님이 감자가 없지는 것을 오래도록 모를리 없다. 그렇다고 대중공사를 열어서 감자를 구워먹지 못하게 할 정도로 꼭 막힌 스님도 아니다. 그래서 고방문에는 문고리가 박아지고 자물통이 채워졌다. 그러나 감자국이 여전히 계속되었다. 감자국이 공모자 가운데는 못과 손톱끼리만 있으면 웬만한 자물통은 다 따는 스님이 있다. 이 스님의 재주를 미처 몰랐던 원주스님의 실책이었다.

아무 말 없이 감자 유출을 막기 위한 비상책을 강구하던 원주스님이 강릉을 다녀왔다. 손에는 큼직한 번호 자물통이 들려있었고 틀림없이 고방에 채워졌다.

그러나 감자국은 계속되었다. 그날 감자국이 당번은 40대의 원두(圓頭)스님인데 이

스님은 묘한 승심이 있는 분이다. 어느 절엘 가거나 절간 방에 문이 채워져 있으면 틀려 귀를 뚫어 버린다. 문이 감출게 무엇이 있으며 도둑맞을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서 중생의 업고와 무명을 가두어 놓은 것 같아 갑갑하다는 지름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다. 원주스님이 화심의 미소를 띠면서 잠갔던 고방문이 들쭉거릴 뻔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원주스님은 언짢아서 우겨지상을 지우질 못했지만 감자국이 동호인들의 희색은 만만하다. 원주스님의 관정쾌다. 그렇다고 관정쾌를 당하고 선선히 감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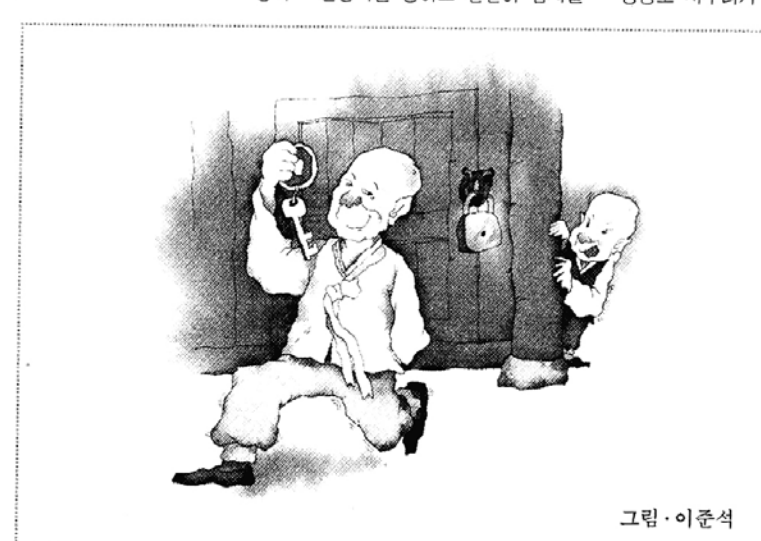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훌륭한 선객은 화두에 끌려 다닌다 유무에 얽매인 세간지식 쓸모 없어

대중에게 내맡길 원주스님은 아니다. 와산상담의 며칠간 고심 끝에 모책은 강구되었고 드디어 실천에 옮겨졌다. 주부식의 원료가 감자 편중(偏重)이다.

살과 감자의 비율이 6:4이던 점심이 4:6으로 뒤바뀌고 잠곡과 감자 비율이 반반이었던 저녁은 3:7로 되었다. 부식도 매끼마다 감자국에다 감자나물이 올랐다. 대중이 항의를 하자 원주스님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감자 먹기가 얼마나 포만감이 되었으면 그 부족한 밥상을 줄여가면서까지 감자를 차지겠소. 스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감자 일변도의 메뉴를 짤 뿐입니다. 일주일 내로 메뉴표를 고칠 것 약속합니다.”

대중들은 틀림없이 감자에 질리고 말았다. 감자국은 끝이 나고 동호인들이 뿔뿔이 헤어졌다.

인간 식성의 간사함을 잘 파악하고 이용한 원주스님에게 관정승이 돌아갔다. 역시 살림꾼인 상원사 원주스님다운 책략이었다. 우리

능하다는 선리를 납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견존재(見存在)인 육체의 유무에 얽매게 되고 사유를 가능케하는 정신의 유무에 얽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방의 연륜을 더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식과 함께 분석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무식과 함께 화두가 들어 있음을 알게된다. 이때 비로소 선객이 되는 것이다. 어느 절에를 가더라도 입구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볼 수 있다. “입차문내 막존지해(入此門內 莫存知解).” 유무에 얽매인 세간의 지식은 무용하다는 뜻이다.

선객을 끌고가던 화두는 마침내 선객을 백치기 아니면 천재쪽으로 끌어놓는다. 백치는 백치성 때문에 고통에서 해방되고 천재는 천재성 때문에 번뇌에 얽매인다. 그래서 대우(大愚)는 대현(大賢)이 되고 대고(大苦)는 대탈(大脫)이 된다.

(계속)

법안명상 사범학교 99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21세기를 선도할 지도자그림에 일일이 될 분을 찾습니다.

- 심신정화하여 사회정화 할 수 있는 지도자범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함.
- 각형원만하여 대중을 자유, 평등, 화합의 세계로 인도할 법사를 양성코자함
- 전법교화하여 이웃을 돕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며 진실정도인 정화세계를 이룩할 인재 양성을코자함.

- 1 교과 및 모집인원 : 법안명상과 10명 (2년제 주말수업) 기공사범과 10명 (2년제 주말수업) 만국역리학과 30명 (2년제 통신 및 주말수업) 불교학과 30명 (2년제 통신 - 법사원위탁교육)
- 2 입학자격 : 만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단 불교학과는 고졸이상임)
- 3 원시교부 및 접수기간 : 99년 1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 불교학과는 2월25일까지임)
- 4 전형방법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전형료 ₩25,000 · 원시대 ₩5,000
-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 1부, 여권사진 8매, (최종학력증명서1부 불교학과만해당함)
- 6 등록금 : 학기당 35만원(입학 단계, 학계 소집교육시 숙식포함) (단 불교학과는 통신교육이므로 교과서,강의테이프,우송료포함) 숙식별도
- 7 입학금 : 10만원
 - * 특전 : 성적우수자 장학금지급,사범및포교사자격수여, 수행법계승수, 수계, 불교대학원입학추천 우수졸업생은 분교사범 및 조교사로 임명함
 - * 선원, 명상수행원, 기공도장, 포교원, 역학원, 사찰청년선적 적극 지원함
 - * 기타 : 기술사관비 - 선착순 0명 (월15만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않음, 우편접수가능함 (당일소인유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부문의 문의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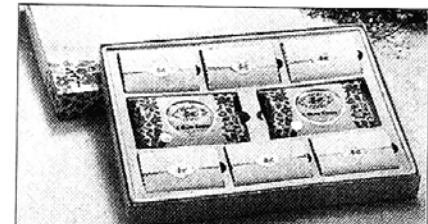
법안명상 사범학교 정화사 해명선원 사단법인 법사원불교대학 조치원분교

339-830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형(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형(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몸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효과를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 ▶ 생리통 · 기미
-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거기도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든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제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력을 배품(신권형)에 차는 것만으로 효과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헤어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 ▶ 매당되는 증상(O)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장이 예민하나 신경쇠약이 없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배꼽이 건조하고 딱딱하다.
 - 11 배나 복부 크기에 비해 땀이 많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붉은 실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감성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